

응축 작업을 구성원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?

나는 전쟁사에도 관심이 많아서, 이번엔 전쟁 이야기를 해볼게.

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한때 유럽 대륙을 거의 다 장악했어. 반격을 위해 영국에 모인 연합군은 도버해협을 건너 대륙 어딘가에 상륙해야 했는데, 가장 가까운 데가 덩케르크였어. 당연히 독일도 그걸 아니까 철벽같이 방어했지.

반면 노르망디 지역은 거리도 먼 데다 해변 바로 앞이 절벽이라 상륙하기 힘들어. 더구나 마치 인천 앞바다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 빠지고 나면 배가 못 들어가. 도무지 상륙할 수 없는 곳인데, 남들이 생각지 못한 데를 공략해야 하잖아. 그래서 이곳이 낙점됐지.

위험을 무릅쓰고 노르망디에 수십만 명을 상륙시켜야 하는데, 자칫 잘못하면 희생이 너무 큰 거라. 그래서 작전계획서가 커다란 학교 창고에 가득 찼 만큼 촘촘하게 전략을 짰대. 모든 예하 부대별로도 지휘관들이 모여 아주 상세하고 철저하게.

드디어 D-데이. 그날따라 날씨도 나빠. 하여간 총출격. 그런데 상륙정이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거지. 영화 <라이언 일병 구하기>의 첫 장면에 리얼하게 나오니 한번 봐봐.

하여간 철저하게 전략을 세웠지만, 해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전략이고 나발이고 없지. 당장 총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살아남기만도 바쁘지 않겠어?

그럼 도대체 작전계획이란 게 왜 필요한 걸까?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총지휘했던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의 유명한 말이 있어.

“Plans are nothing. Planning is everything.”